

西洋 壽衣文化에 관한 考察

김 경 희 · 이 순 홍

서일대학 의상과 전임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Western Shroud of Culture

Kyung-Hee Kim and Soon-Hong Lee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 Textile Design, Seoil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Funeral rites relate to the last ceremonies involving the process of human beings moving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becoming part of a life which remarkably reflects the world after death. They can be said to be the best culture created by the conception of death.

The ceremonies of mourning, or ubiquitous folk phenomena of all the ages from the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represent the mass belief of each nation in spiritual worlds as well as the feelings of individuals facing death.

In so far as their methods are concerned, the ceremonies vary in accordance with ages, nations, regions and culture. The practices of today's funeral rites conducted in the West have been formed and changed throughout its long history.

Now that the ceremonies are a combination of complicated cultures, they serve as an important tool for inquiring into the spiritual life of the people of an age in question and the pictures of the society concerned.

Therefore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into the culture of shrouds showing respect for the dead in the West. With the view of examining death, the base of funeral rites, this study is to deal not only with embalment, a process of washing and shrouding the dead, and grave clothes for them, but also with the spiritual culture of human beings in relation to death represented in their pictures.

I resort to literature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shrouds of the dead which appeared in a period from the Medieval Age to the 19th century.

Key words: funeral, shroud, embalment, winding sheet.

I. 序 論

상례(喪禮)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마지막 의례(儀禮)로서 인간의 사후 세계(死後世界)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생활양식의 일부이며, 죽음이라는 관념적 사고가 만든 최고의 문화(文化)라고 할 수 있다.

상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 서나 있어 왔던 민속현상(民俗現象)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 감정뿐만 아니라 영혼세계(靈魂世界)에 대한 각 민족의 집단적 신앙도 나타나 있다. 이것은 인류보편적(人類普遍的) 감정의 표현인 동시에 각 문화의 특성이 집약적(集約的)으로 표현된 가장 명료한 상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상례는 장기간 지속되는 관습으로 시대·민족·

지역·문화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례의 관행들도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된 것이다.

죽음은 일찍부터 출생이나 결혼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두려움, 슬픔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감정 등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상황 안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둘러싼 관습과 의식은 탄생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보다 더욱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례에는 복잡한 문화들이 접합되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사회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양에 나타난 죽은 자에 대한 예우(禮遇)의 관습인 수의문화(喪儀文化)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내용은 장례의식(葬禮儀式)의 근거가 되는 죽음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상(圖上)에 나타난 죽음에 표현된 인간의 정신문화와 시신(屍身)에 행해졌던 염습과정(斂襲過程)인 시신의 방부처리와 시신에 입혀지는 의복에 대한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중세시대부터 19세기까지 수의에 대하여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수의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서양수의에 관한 자료는 이렇다하게 정리된 자료가 비교적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 언급된 것도 극히 드물어 한 시대나 한 지역에 편중(偏重)되어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圖上에 나타난 죽음

1. 죽음에 대한 理解

죽음의 관념(觀念)이 변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죽음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죽음을 터무니로 만든 지금 우리의 관념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

성된 특수 유형(類型)인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명제(大命題)들 중의 하나이다. 죽음이란 고통과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인 동시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의 이별이라는 하나의 종착점으로서 두 개의 모순적인 감정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감정은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 본원적(本源的)으로 품고 있는 어떤 감수성에 특정 지역의 후천적이며 환경적인 요인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지역적, 시대적인 독특한 생활 방식들이나 삶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의 틀이 부과됨으로써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은 시간적인 차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한시대의 관념이 바뀌면 그 시대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죽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상(圖上)에 나타난 죽음을 통해 그 시대에 표현된 죽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죽음의 表現

1) 중세

중세사회에서 교회는 공통적인 정신생활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회적 중심지로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팽창이 활발하게 형성되었다¹⁾.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죽음에 승리를 거둔 이후,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없이 받아들였다. 중세 초기의 죽음은 공동체의 집단적인 운명(運命)이자 인간 종(種)의 보편적 운명으로, 공동체 사회의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²⁾.

중세 초기의 죽음에 대한 의식은 아주 오래된 요소들로부터 확립되었다. 그 의식은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부분적으로 복원된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분명하게 존속하고

1) 자크 르 고프, 유희수 옮김, 서양중세사(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0), p.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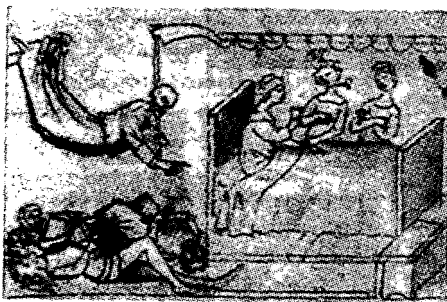
2) Philippe Aries,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a Nos Jours, Editions du seuil Paris, (1975), p.89.



<그림 1> 성유물갑(聖遺物匣)
(De L'homme Devant La Mort, p.193)

있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감(豫感)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즉 중세의 죽음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거나 죽음을 알리는 징후(徵候)들로부터 느꼈다³⁾.

<그림 1>의 부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는 두터운 이불을 덮은 채 한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침대에 누어 있고, 발치에서는 천사가 그에게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림 2>의 보카치오 「데카메론」에 실린 삽화(插畫)에서는 당시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허공을 떠도는 죽음은 자신이 앓아갈 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다⁴⁾.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종말이 벌



<그림 2>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De L'homme Devant La Mort, p.194)

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

중세 후반의 죽음은 새로운 사상, 즉 특수한 심판에 대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서 변질되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서서히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부활의 의미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죽음 뒤에 오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것은 중세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의 사회·심리적 표현이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중세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유언장(遺言狀)으로 나타났다. 이 유언장은 종교적인 수단이었으며, 부(富)를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행동과 결부시키고, 근본적으로 지상(地上)의 사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그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유언장은 「천국으로 가는 패스포트」⁵⁾로서 유언자와 신(神)의 대리인(代理人)으로서 교회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보증계약서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영원성과 연결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지상의 통행허가증으로 미사와 기도 그리고 자선행위로써 중세 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위로받고자 하였다.

2) 근 세

15세기에는 상업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민계급은 무시할 수 없는 계급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개인이 서서히 의미를 갖기 시작하여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누르고 우위(優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여 과거의 죽음은 인간들의 보편적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죽는다'라는 보편적 사실보다 '나도 죽는다'라는 특수한 사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⁶⁾.

15세기말부터 16세기에 이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나타나면서 죽음에 대한 허구적인 관념대신 실제의 죽음을 표현하는 마카브르(macabre : 썩어가는 시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

3) Philippe Aries, *Images De L'homme Devant La Mort*, Editions du seuil, Paris, (1983), p.22.

4) *Ibid.*, p.195.

5) J. Le Goff, *La Civilisation de l'Occident medieval*, Paris, Arthand, Coll, 「*Les grandes civilisations*」, (1964), p.240.

6) 진중권, 「춤추는 죽음 I」, (서울 :세종서적, 1997), p.95.

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였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감상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현실로 나타나면서 음울(陰鬱)하고 무서운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삶의 환희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인하여 죽음의 춤(danse macabre)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⁷⁾.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도상(圖上)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들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바니타스(Vanitas)의 등장이며, 또 에로스(Eros)와 죽음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과거 수도원이나 공동 묘지의 벽에 그려졌던 마카브르가 17세기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나타나게 되어 사람들은 해골이 있는 그림이나 초상화나 정물화를 벽에 걸어놓거나 가끔 진짜 해골을 방에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바니타스라고 부르는 데 초상화나 풍경화, 정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시대의 마카브르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세의 마카브르는 대개 '회개'의 상징이거나 신의 명령을 받고 형을 집행하는 죽음의 사자였지만 16세기와 17세기의 바니타스는 더 이상 무서운 '죽음의 사자'의 상징이 아니었다⁸⁾.

<그림 3>은 한스 홀바인의 작품으로 바니타스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이 그림은 삶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발아래 카펫트 위에 해골의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니타스라는 말은 덧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두려움없이 반지나 브로치 혹은 펜던트 등의 형태로⁹⁾ 몸에 걸치고 다니기까지 했던 것이다.

또한 이 시대에 등장하는 테마 중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에로스와 죽음과의 결합이었다. 이 과정은 이미 16세기초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17세기에 이르러 완성되어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어떻게 사랑과 죽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6세기부터 죽음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묘



<그림 3> 한스홀바인의 영국왕실의 프랑스 사신들 (Costume & Fashion, p.84)



<그림 4>니콜라우스 미뉴엘의 딸과 죽음 (춤추는 죽음 I, p.213)

사되어 나타났다. <그림 4>는 바로 죽음과 삶을 대조시키는 그림으로 젊음, 아름다움,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죽음의 이미지에 대비시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근세의 죽음은 중세 부활의 죽음이나 심판의 죽음과는 또 다른 의미로 변화하였다.

3) 19세기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이르게 되면 고통의 표상(表象)이었던 죽음은 이제 고통으로 변화되었다. 19세기의 과도한 슬픔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타인의 죽음을 과거보다

7) Gert Kaiser, Der Tanzende Tod, hrsg. von Eva Schnster, Recklinghausen, 1992, p.23.

8) 진중권, *op. cit.*, p.208.

9) Philippe Aries, Images De L'homme Devant La Mort, *op. cit.*, p.378.

힘들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려움을 주는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 즉 타인의 죽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묘(墓)나 묘지(墓地)에 있어서 현대적인 숭배(崇拜)의 기원이 되었다¹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죽음이 악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올 세계에 대한 관념도 변화되었다. 죽음 다음에 오는 세계 즉, 내세(來世)는 더 이상 상을 받거나 악인이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갈라 놓았던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만나는 곳, 사랑하는 자들의 완전한 결합의 장소가 되었다¹¹⁾. 그러므로 이 세계로 들어가는 죽음은 달콤한 것이 되었고 이 달콤한 죽음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중세에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마카브르의 고통스런 이미지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신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아름다운 육체였고 고통을 받는 자는 아름다운 죽은 이의 주변에 모여든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19세기에는 이전 시대의 죽음에 대항하면서 과거의 죽은 자를 떠나 보내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그림 5). 그리하여 삶은 공허한 상실의 공간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고 반면에 죽음은 아름다운 것으로 변용(變容)되어 나타났다. 19세기부터 죽음의 이미지는 점점 회미해져 갔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5> 임종을 맞는 소녀
(춤추는 죽음 II, p.117)

III. 壽衣

1. 壽衣의 機能 및 副葬品

1) 수의의 기능

우리 나라에서는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시의(屍衣), 고대에는 습(襲), 현재는 수의(壽衣)라고 한다. 수의(壽衣)는 신의(新衣)로 갈아 입힌다는 의미로 갱의(更衣)라고도 한다¹²⁾.

수의는 사자(死者)가 저승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옷으로 그것은 사자의 알몸을 가리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영혼이 산 자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봉합의 기능을 한다¹³⁾. 또한 많은 유언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최후의 옷은 큰 중요성을 띠었다.

일반적으로 수의로 시신을 치장하는 것은 시신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또 시신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꾸미기 위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었다. 시신의 처리는 지역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사후보존(死後保存)을 위해 지위와 성별, 나이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¹⁴⁾.

수의는 고인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입고 있는 사람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수의는 장례관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며 역사적, 종교적,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하나의 상징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시신을 천으로 싸는 관습은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은 마치 시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보다 단정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수의는 시신에 입히는 최후의 예복이며, 죽음이라는 슬픈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세에 대한 경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부장품

10) Philippe Aries, *op. cit.*, p.60.
 11) 진중건, 「죽음의 춤 II」, (서울 : 세종서적, 1997), p.32.
 12) 송덕운, 「喪葬의 冠」 제4장 염복, (서울 : 중국청년출판사, 1991), p.57.
 13) M. Vovelle, *La mort et l'Occident*, Paris : Edition du Seuil, (1978), p.44.
 14) Phillis Cunningham & Catherine Lucas, *Costume for Births, Marriages & Deaths*, N.Y :Harper & Row Publisher Inc., (1972), p.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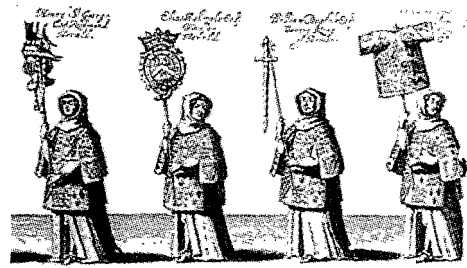
아주 오래 전부터 시신을 매장할 때는 고인이生前에 사용하였던 물건들과 살아있었다면 사용했을 물건들을 함께 묻었다. 이러한 부장품을 넣는 관습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개인 소유물이나 장신구들을 가장 안전하고 고귀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중세시대에 군주의 시신을 매장할 때는 전령복 또는 갑옷을 직접 무덤 속에 같이 넣었으며, 고인의 직권(職權)을 나타내는 반지나 열쇠도 함께 묻었다. 또 고인이 테리고 있었던 하인들 중 지위가 높은 자의 관장(官杖)을 무덤 속에 같이 묻기도 하였다¹⁵⁾.

또 왕이 사망하면 왕이 사용하였던 검이나 왕의 머리를 손질하던 가위, 상아빗 등도 함께 묻었다. 이러한 고인의 소장품을 함께 매장하는 관습¹⁶⁾은 고인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상징을 나타내는 장례관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 시기와 19세기에는 주교(主教)들과 대주교(大主教) 그리고 수도원장(修道院長)이 사망하게 되면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목장(木杖: 주교나 수도원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 또는 홀장(笏杖)을 함께 묻었으며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관식(戴冠式)에서 수여되었던 관장을 함께 묻었다. 또 시신을 매장할 때 의복의 장신구를 함께 묻지 않더라도 고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묻기도 하여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¹⁷⁾.

또 고인과 같이 무덤에는 매장되지 않지만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장례식에서 대표되는 고인의 장신구인 “상중문표(喪中紋標)”는 고인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중문표는 갑옷 위에 걸치는 문장관복(文章官服)과 투구와 방패의 장식, 검이나 그 외의 물건에 문장을 넣는 것으로 관(官) 앞에 열을 지어 늘어선 제단(祭壇)에서 식을 집행하는 성직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후계자에게 전해지게 되면 이것을 다시 교회로 넘겨 주게 되는데 실제로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귀족의



<그림 6> 상중문표(喪中紋標)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129)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덤 앞에 걸어 놓았던 대표적인 장신구였다(그림 6).

또 상징적으로 시신과 함께 묻히게 되는 의복은 고인이 입었던 의복이 아니라더라도 고인의 평생을 위하여 성직자가 입었던 종교복 같은 의복을 함께 묻기도 하였다.

이렇듯 고인의 소장품인 옷이나 반지 등 여러 가지 장신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고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2. 壽衣의 특징

1) 屍身の 防腐處理

전통상례(傳統喪禮)에서는 관에 시신을 넣기 전 시신에 옷을 입히고 씻는 과정을 염습과정이라고 하며, 사후(死後) 즉시 시신을 깨끗이 하고 수의를 입혀 입관(入官)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서양에서는 시신을 방부처리하고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되어 있다.

중세 초기 시신의 방부처리는 보기 드문 일이었지만, 르네상스시대에 다가가수록 시신에 방부처리하는 것은 더욱 빈번해졌다¹⁸⁾.

해브라이인(Hebrew)은 시신에 기름과 향수(香水)와 향료(香料)를 바르는 방부처리 기법을 사용하였

15) L.V. Grimsell, *Folklore*, Vol. 72, (1961), p.476.

16) R. J. Stevenson, *Church Historians of England*, Vol. I, p.784, cited by,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1972), p.126.

17)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cit.*, p.123.

18)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The History of American Funeral Directing*,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nc., (1985), p.83.

는데, 이것은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보다는 3일간의 철야배가 끝날 때까지 그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¹⁹⁾.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성령(聖靈)의 전(殿: 육신)으로 여겼으므로 일반적으로 절단 문화를 사용하던 이집트인들의 방부처리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인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방부처리를 하였다는 실례를 찾을 수가 있으며, 그 중에는 내장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12세기부터는 심장을 분리하여 매장하는 관습이 시작되었으며 이처럼 신체의 일부를 분리하여 방부처리 하는 것은 고대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3세기 성직자의 시신은 심장을 따로 적출(摘出)하여 심장을 따로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또, 왕실에서도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심장을 본인어지니고 있다가 자신도 숨을 거두게 되면 자신의 심장과 같이 납골(納骨)단지 속에 함께 넣어 묻는 경우도 있었다²⁰⁾. 이러한 관습은 15세기 뿐만 아니라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관습 중의 하나였다.

중세시대에는 시신의 방부처리를 하기 전(前) 먼저 내장(內臟)과 뇌(腦), 눈, 그리고 혀 등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었다. 장기(臟器)들을 분리한 후에 방부처리된 시신과 함께 관속에 넣어 매장되었다.

이와 같이 분리된 장례식은 18세기와 19세기까지도 많은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신의 방부처리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시신의 방부처리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유한 상류층이나 왕실에서만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된 관습이었다. 시신을 방부처리하는 데는 왁스와 향료, 린넨, 실크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에 드는 비용은 그 당시 밀을 28쿼터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한다²¹⁾. 이처럼 염습과정에 필요한 많은 절차와 희귀한 향료, 화학약품, 연고, 수의 등에 드는 비용은 대단한 부호가 아니고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처럼 시신에 대한 방부처리는 이집트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기 전 먼저 시신의 내장(內臟)을 제거한 후 폐인 부분(腔, cavity)을 물과 알코올로 닦아 내고 장미 향수와 같이 좋은 냄새가 나는 물질을 발라 주었다. 이 부분을 향료와 화학 약품 그리고 면과 같은 흡수제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그 안을 3겹으로 채웠는데, 이것은 시신의 건조를 도와주고, 좋은 향기를 내게 하였으며,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시신에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타르(tar) 또는 뱃밥(oakum : 오래된 대마엮음에서 나온 느슨한 섬유)으로 채워 주었다²²⁾. 마지막으로 면을 이용하여 입과 시신의 콧구멍, 귓구멍을 막고 얼굴은 소금을 넣은 장미 향수로 닦아 내고 마지막으로 왁스 처리를 한 라넨으로 전신(全身)을 덮었다. 그리고 난 후 시신이 누워 있어야 하는 동안 약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신 위에 외투를 덮었다. 이처럼 시신을 몇 겹의 수의로 잘 싸서 공기와외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그 시대로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부처리 방법이었다.

2) 壽衣의 일반적 특징

(1) 일반인

수의를 고인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통과(通過)의 의복이며, 중세에서의 수의는 부활의 복장이었다. 또 많은 경우 시신을 흙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유일한 덮개였다²³⁾.

중세 초기는 시신의 지위에 따라서 캐미시어(camisia)라고 불리우는 셔츠형의 내의를 입고 그 위에 겹옷을 입혔다. 이들의 겹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옷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일 서북부, 내델

19) *Ibid.*

20) Charles A. Bradford, *Heart Burial*,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33), p.56-58.

21) *Ibid.*, p.31.

22)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87.

23) J. Chiffolleau, *La Comptabilite de l'au-dela, Les hommes, la mort et la religion dans la region d'Arignon a la fin Moyen Age*, Rome : Ecole française de Rome, (1980), p.121.



<그림 7> 나선형으로 감은 누에고치 형태의 수의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353)



<그림 8> 긴 노끈으로 감은 수의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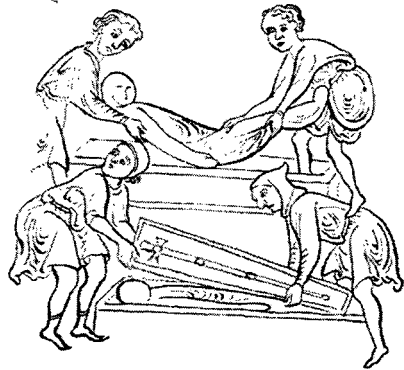
란드, 덴마크 등지에서 발굴된 무덤에서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은 짧은 바지, 소매가 있거나 없는 튜닉 형태, 클록(cloak)²⁴⁾ 등으로 이들의 걸음도 평상시 입던 의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신은 매장 전까지 가족과 친척들이 영결(永訣)할 수 있도록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있다가 매장 직전에 수다리움(sudarium : face-cloth, 그림 12참조)이라는 손수건만 한 작은 천으로 얼굴을 덮고 시신(屍身)을 싸는 수의(winding sheet)로 몸 전체를 감쌌다²⁵⁾.

중세 초기 수의의 대부분은 <그림 7>에서처럼 시신을 나선형으로 감은 누에고치의 형태로 되어 있

며, 12세기에는 시신을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팔, 다리, 얼굴을 분리하여 감싼 후 다시 긴 노끈으로 십자형으로 공공 감아 묶어 시신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의형태가 있었다.

관을 사용하지 않았던 11~12세기초의 수의는 주로 마직물을 사용했으며 때로는 이 위에 좀더 질기고 두터운 모직물 포를 덧 싸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만을 땅에 묻는 예가 많았다²⁶⁾.

12세기 이후부터 관이 사용되자 노끈으로 묶는 관습이 점차 사라져서 <그림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와인딩시트(winding sheet)만으로 몸을 싸서 매장하였다. 그러나 관을 사용해서 몸 전체를 노끈으로 묶어줄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손발, 특히 발만은 튼튼한 끈으로 잘 묶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처럼 시신을 묶는 관습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죽은 자의 영혼이 시신에 돌아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혹은 악령이 죽은 이의 시신을 빌어 세상을 떠돌며 사람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에 근거를 둔 행위였다. 시신 중에도 방향하



<그림 9> 노끈으로 묶지 않고 팔다리를 분리해서 감싸는 수의(*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157)

24) Ko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ed. Emma V.S., trans. Alexander K.D., NY : Dover Publication, (1928) p. 45.

25) J. Strutt, *Dress & Habits of the People of England*, 1796, cited by Cunnington & Catherine Lucas, (1972), p 156.

26) Philippe Aries, *Images De L'homme Devant La Mort*, op. cit., p.238.



<그림 10> 노끈으로 사탕껍질처럼 싼 수의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160)

기 쉬운 혼을 지닌 시신, 예를 들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발에는 아무 것도 신기지 않으므로써 시신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신었던 신발도 벗겨서 잘 감추어 두어야 했다.²⁷⁾

그러나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이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감정을 갖고 죽은 이로부터 정(精)을 때려내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초월하여 죽은 이와 관계를 되도록 오래 지속시키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죽은 자의 부



<그림 11> 손발을 묶지 않은 수의형태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125)

활을 기원하게 되었다²⁸⁾. 그래서 시신(屍身)의 발을 일부러 묶지 않거나 와인딩시트를 손발부분에서 묶어주지 않고 느슨하게 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기도 하였다(그림 11). 이처럼 수의란 부활의 기원을 표현하기 위해 또 시신(屍身)에게 경외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입혀졌다.

또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와인딩시트로 시신의 머리 위와 발끝 아래 양쪽을 붙들어 매어 마치 사탕 껍질을 싸듯이 묶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²⁹⁾ 이 관습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러까지 나타난 수의의 형태이기도 하였다.

17세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관속에 넣지 않고 “교구의 광주리(parish hamper)”와 같은 것을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관이 일반화되어 그 이후에는 대부분 관속에 시신을 넣어 매장하였다. 그리하여 수의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시신의 얼굴을 싸는 것(sudarium)이 보편적인 요구사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³⁰⁾(그림 12).

중세시대 평민들의 수의는 셔츠형의 내의를 입힌 후 겹옷을 입히고 와인딩시트로 싸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세 이후로는 나체의 시신을 와인딩시트만으로 싸는 경우, 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일상복을 입히는 경우, 혹은 와인딩시트를 겹치는 셔츠



<그림 12> 흰색의 프란넬cap과 수의를 입은 시신에
얼굴을 싸는 모습(*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162)

27) Radford, *Encyclopedia of Superstitias* edn. p.307, cited by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1961), p.123.

28) Funerary Rites & Customs,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9, (1971), pp.1011-1017.

29) Phillis Cunningham & Catherine Lucas, *op. cit.*, p.157.

30) *Ibid.*, p.158.

만을 입히는 경우 등 다양한 수의 형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셔츠는 시신을 감싸고 남는 부분을 발끝에서 접어 묶어줄 수 있도록 긴 길이로 만들었으며, 목이 굳은 시신에게 셔츠를 쉽게 입힐 수 있도록 앞트임으로 하여 가슴부분까지 깊게 파주었다. 이때 앞트임의 언저리와 소매 끝에는 장식용 러플을 달기도 하였다³¹⁾.

셔츠 이외의 장식구로는 시대나 신분에 따라 호즈, 신발, 장갑, 크라바트, 캡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셔츠나 와인딩시트 등, 시신에 직접 닿는 것은 모두 흰색 린넨으로 만드는 것이 관습이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수입품 린넨으로 수의를 만들곤 하였다. 그러므로 수의가 영국섬유제품의 주종인 모직물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1666년에 제지 제조업자들과 양모 제조업자들은 “모직물 사용에 관한 법령(Wool Act)”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1678년과 1670년에 다시 개정법규가 도입되어 고인의 친족들이 양모수의를 사용할 것을 선서해야 하는 내용과 모든 수의와 장의(葬儀)에 쓰이는 품목은 모 이외의 직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첨부되었다³²⁾. 즉, 양모대신 실크, 금, 은사 등이 섞인 수의를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거친 모직물의 수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을 택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작용하게 되어 수의대신 꽃과 건초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法令)이 잘 지켜지지 않아 1814년에 폐지되었다³³⁾.

중세시대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장의사(葬儀社)들의 이윤 때문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의 과욕으로 인해 실크, 레이스와 벨벳으로 수의를 장식해 매장에 드는 비용을 터무니없이 많아지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모직물 수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수의 소재가 되었다³⁴⁾.

이러한 수의의 사치에 관해서는 모직물 사용에 관한 법령(Wool Act)규정을 전후(前後)한 17세기말과 18세기초의 기록들에 계속 언급되어³⁵⁾ 있어 이 법령이 오히려 수의의 사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수의는 17세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혼수를 준비하듯이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집에서 수의, 모자, 호즈 등을 정성들여 준비하여 착용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 장례(葬禮)와 장구일체(葬具一體)를 전담하여 공급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장의사(葬儀社)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수의와 와인딩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장의사(葬儀社)의 일반적인 관례(慣例)가 되었다. 그래서 수의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등장해 20가지 길이에 4등급의 품질로 구분되는 수의와 러플 및 와인딩시트를 선전하는 문구 등도 볼 수 있었다³⁶⁾.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셔츠와 와인딩시트 혹은 내의만으로 구성되는 수의보다는 고인의 평상복 중 가장 좋은 옷을 선택하여 수의로 삼거나 평상복의 형태로 수의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1868년 남자들의 수의로는 양복과 코트를 입혔는데 이때의 수의는 발까지 감싸 입혀졌다. 여자의 경우에는 평상복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흰색의 잠옷을 입히기도 하였으며, 이때에는 흰색 스타킹을 신기는 것이 선호되었다. 또 갓 결혼한 신부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웨딩드레스로 수의를 입히기도 하였다. 빅토리아시대에는 새틴주름장식이 가득 달린 흰 모직소재의 수의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앞면에 주로 장식용 한 잠옷과 비슷한 수의를 입혔다³⁷⁾(그림 13). 그리고 이전처럼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관에 넣고 그 뚜껑을 열어 문상객들이 시신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은 19세기말까지 계속

31) Memories, trans. Ozell, 1917, cited by, Cunnington & Catherine Lucas, (1972), pp.160-161.

32)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76.

33) C. J. Polson, *The Disposal of the Dead*, London : English Universities Press, (1953), p.8.

34)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163.

35) C. J. Polson, ed., *The Disposal of the Dead* (London : English Universities Press, 1953), p.8. cited by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76.

36) J. Turner, *Burial Fees for Undertakers*, cited by,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164

37)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288.



<그림 13> 주름장식이 가득 달린 흰 모직의 수의
(The History of American Funeral Directing, p.288)



<그림 14> 유아의 수의-세례용 흰옷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271)

등장하였다.

또 어린이의 수의는 성인용으로 쓰이던 수의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후 1달 이내에 사망한 유아들은 배내옷을 입혀 세례용 흰옷(chrisom)으로 싸고 노끈으로 감은 후 매장하였다³⁸⁾(그림 14).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어린이의 매장에 있어서는 흰색의 장의용품이 사용되었다.

(2) 성직자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수의를 입고 묻혔으며 군인은 군복을, 특히 수도사와 수녀, 성직자는 성직자들 그들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직복(聖職服)을 갖추고 안장(安葬)되었다. 특히, 카톨릭 신부(神父)들과 대수도원장은 일반적으로 수의로 미사복을 입었는데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주교복 밑에 튜닉을 받쳐 입고 그 위에 달마티카를 입고 장식이 달린 실크 부츠를 신고 그 위에 샌들을 신었다. 그리고 머리에 주교관(主教冠)을 쓰고 지팡이, 반지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되었다.

이러한 주교(主教)의 수의에 관한 역사는 687년에 사망한 St. Cuthbert의 무덤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때 주교의 수의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또한 아주 정교하게 싸여 있었다고 한다³⁹⁾. 그 당시 주교 머리와 얼굴은 질 좋은 천으로 싸여 있었으며, 머리와 주교관은 보라색의 천으로 덮여 있었다. 이 보라색의 천은 새와 동물무늬가 새겨져 있고 가장자리는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목은 개두포(amicie)⁴⁰⁾로 둘러져 있었고 발은 장백의(alb)⁴¹⁾로 싸여



<그림 15> 성직자의 수의로 입혀진 제의
(Histoire du Costume, p.72)

38)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270.

39) J. Stevenson, Rev. Joseph, The Church Historians of England, Vol. I, pp.781-785, cited by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1853), p.165.

있었으며 영대(領帶)⁴²⁾의 끝은 튜닉과 대관복 아래로 나와 있었다. 또 머리에는 보석장식이 박힌 금색 끈으로 감겨 있었으며 발에는 주교 샌들이 신겨져 있었다. 시신에는 큰 술이 달린 리넨천이 전체를 감고 있었으며 그 위에 3겹의 얇은 천이 덮여 있었다.

또 1205년에 사망한 Hubert Walter 대주교는 레이스장식과 금으로 수놓은 다마스쿠친을 사용한 제의(祭儀)를 입고 있었으며, 대주교에게 입혀지는 영대를 두르고 반장화형 샌들, 주교관,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된 지팡이와 보석이 박힌 금반지 등을 긴 채로 매장되었다⁴³⁾. 그러나 성직자(聖職者)의 수의에 많은 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주교관(主敎冠)은 장례식을 위하여 비교적 단순한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 착용되어 매장되었다.

수의는 종교개혁이후 쇠퇴하였고 주교는 일반적으로 주교관, 코프(cope), 중백의⁴⁴⁾, 그리고 소백의⁴⁵⁾를 입고 묻히게 되었다.

성직자의 수의는 장례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필요했기 때문에 시신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지속할 수 없어서 실물크기의 나무로 만든 형상(形象)을 관 위에 놓았다⁴⁶⁾. 그리하여 의식행사에서 착용했던 의복을 입고 묻히던 수의에 관한 관습에 변화가 일어났다.

(3) 상류층

왕이나 귀족 부자 등의 상류층에서는 수의를 입히기 전에 상당한 경비를 들여 시신에 정교한 방부처리를 하였다. 이미 상류층은 시신을 보다 미화된 상태로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내장과 심장을 꺼내 별도의 향아리에 담고 시신을 소금물과 향유로 담았다. 여기에 초나 타르(tar), 혹은 고무를 먹인 마포, 즉 씨어클로스(cerecloth : 밀납을 입힌 천)로 싸

다. 이렇게 준비된 시신은 관이 없던 시기에는 소가죽이나 얇은 철판으로 싸서 매장하였는데, 11세기 이후 약 1세기 동안 질긴 가죽이나 소가죽으로 시신을 싸는 관습이 지속되어 왕의 시신들은 도금한 소가죽으로 된 고급수의를 입고 매장되었다⁴⁷⁾. 그러나 관의 사용으로 시신을 묶는 노끈이나 소가죽 및 철판의 필요성을 약화시켰으나 왕이나 귀족들은 관 대신 철판만으로 싸서 묻거나 관에 넣더라도 일단 철판이나 소가죽으로 싸서 넣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16세기에는 이미 관을 사용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씨어클로스(cerecloth)로 싸 후 철판만으로 꼭꼭 싸서 매장하기도 하였다.(그림 16)

12세기에 처음으로 왕의 대관복이 수의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즉위 당시의 옷을 입고 프랑스에서 전래된 방법인 납과 소가죽으로 시신을 싸서 매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시신에 납을 처음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⁴⁸⁾.

왕의 수의는 <그림 17>에서 볼 수 있는 대관식때 입었던 내의를 속에 입고, 겉옷도 대관식 때의 의복을 입혀 매장하였다. 왕족들은 특히 대관식을 치른 왕의 경우에는 그 시신에게 입혀지는 옷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겉옷으로 입혀지는 수의는



<그림 16> 철판으로 싸서 매장된 모습(얼굴과 팔부분을 열어본 상태) (Costume for Birth, Marriages & Death, p.177)

40) 개두포 : 고대 로마인의 목도리에서 유래. 전례복 착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착용하는 백색의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천.

41) 장백의 : 길이가 긴 흰색의 튜닉형태.

42) 길이 2.5m, 넓이 8.9cm 형태로 목에 걸고 미사성체에 봉헌.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의 상징으로 사용.

43)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166.

44) 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시킨 옷

45) 중백의 보다 길이가 짧은 옷.

46)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168.

47) Robert W. Habenstein William M. Lamers, *op. cit.*, p.72.

48)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cit.*, p.170.



〈그림 17〉 대관식 때 입었던 속옷 수의
(*Costume for Brith, Marriages & Death*, p.173)

14세기초까지 시신에 대관식 때의 대례복을 입혀 그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전시하였다.

따라서 왕족의 시신에는 셔츠, 튜닉과 망토 등을 입혔을 뿐 아니라 장갑·금관·가락지·홀·혁명대·칼 및 금직(金織) 천으로 된 샌들과 반장화(buskin), 심지어는 박차(拍車)장식까지 하여 대관식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생하였다. Henry I세 왕비의 시신도 수의로 로브를 입고 반지 등을 낀 상태로 매장되었다. 그러나 14세기 부터는 성직자의 수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에 사용되는 의복을 입고 묻히던 수의에 관한 관습이 바뀌어 이 모든 화려한 대관식 복식을 시신에 직접 입히지 않고 초나 나무로 만든 장례용 형상을 만들어 왕위(王位)를 상징하는 보물이나 혼장을 장식하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 되었다.

왕비의 경우도 장례용 형상을 사용한 시신은 대부분 나체(裸體)에 여러 겹으로 된 마직 씨어클로스를 감고 그 위를 칠판으로만 싸주고 매장하였고, 그의 형상은 대관식 때의 대례복을 입혔다⁴⁹⁾. 이렇게 형상에는 모든 옷을 대신 입혀 장례행렬 시 관 위에 올려 장례식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장례식이 끝나면 이 형상에 입혔던 옷들은 왕실의 의상실로 되돌려져서 왕의 후계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신과 함께 값진 대례복들이 매장되어 버리던 이전의 장례식에 비하면 형상에 전

시하는 이 방식은 상당히 경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신은 대관식 때 안에 입었던 의상만 입은 채로 매장되었다⁵⁰⁾.

장례용 형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대신 수의를 간략히 입히는 관습은 17세기 장의용 형상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19세기까지 시신(屍身)의 나체(裸體)를 씨어클로스와 벨벳만으로 싸서 입관하였다⁵¹⁾. 즉 장의용 형상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대체로 방부처리와 씨어클로스, 또는 간단한 내의(內衣)만으로 왕이나 귀족의 수의를 삼았다.

그러므로 장례식 조상에 입혀졌던 복식들은 실제 초창기의 무덤 속에서 시신이 입고 있던 의상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IV. 結 論

서양수의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례의식의 근거가 되는 죽음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중세시대 초기의 죽음은 죽음후의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들어오면서 죽음 뒤에 있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언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5세기말부터는 현실로써 맞아들이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카브르가 나타났으며, 이것이 17세기에는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 같이 존재하였다. 또 에로스(愛)와 같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죽음이 19세기에는 타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장례의식에서 시신에게 입혀지는 수의는 사자(死者)가 저승으로 가는 통과 의복으로써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신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시신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꾸미기 위한 장식적 기능에 행해진 일이었다.

시신에 수의를 입히기 전 방부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은 시신을 보다 미화된 상태로 오래 보존하기

49) M.Voelle, *op. cit.*, p.151.

50)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cit.*, p.173.

51) *Gentleman's Magazine*, Vol. 87, 1817, p.432, cited by, Phillis Cunnington & Catherine Lucas, *op. cit.*, p.178.

위한 것으로 시신 방부처리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시신의 방부처리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유한 상류층이나 왕실에서만 행할 수 있는 관습이었다.

중세 초기의 일반인들의 수의는 대부분 나선형으로 감은 누에고치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12세기에는 시신의 팔, 다리, 얼굴을 분리하여 감싼 후 긴 노끈으로 감는 수의형태가 있었다. 또 관이 사용되면서 노끈으로 묶는 관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와인딩시트(winding sheet)만으로 몸을 싸서 매장하였는데 이러한 와인딩시트는 머리 위와 아래 양끝을 묶어 마치 사탕 껍질을 싸듯이 묶어주는 것으로 이 관습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나타난 수의의 형태였다. 19세기 후반은 고인이 착용하였던 평상복 중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입히거나 또는 평상복의 형태로 수의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리하여 남자들의 양복과 코트가 수의로 입혀졌으며, 여자는 평상복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흰색의 잠옷을 입히기도 하였다.

성직자들은 그들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직복(聖職服)을 입고 매장되었다. 대수도원장은 미사복을 수의로 착용하여 머리에는 주교관(主教冠)을 쓰고 지팡이, 반지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후 수의가 점점 쇠퇴하면서 완전한 미사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교관, 코프(cope), 증백의, 그리고 소백의를 입고 묻히게 되었다.

왕(王)이나 귀족들은 유해의 공개로 시신을 방부처리한 다음 써어클로스(cercoth)로 싼 후 소가죽이나 얇은 철판으로 싸서 매장하였다. 12세기에 처음으로 왕의 대례복이 수의로 사용되어 대관식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생하였다. 그러나 14세기부터는 성직자의 수의와 대례복을 입고 묻히던 왕의 수의에 관한 관습이 바뀌어서 시신에 화려한 복식을 직접 입히지 않고 초나 나무로 만든 장례용 형상을 만들어 왕위(王位)를 상징하는 보물이나 훈장으로 장식하여 공개하였다.

17세기 장의용 형상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수의를 간략히 입히는 관습이 계속되어 19세기까

지 시신의 나체(裸體)를 써어클로스와 벨벳만으로 싸서 백색 리본으로 묶어 입관하였다. 이처럼 장의용 형상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대체로 방부처리와 써어클로스, 또는 간단한 내의(內衣)만 수의로 입혀져 매장되었다.

장례식 형상에 입혀졌던 복식들은 실제 초창기의 무덤 속에서 시신이 입고 있던 복식들을 잘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參考文獻

- 진중권 (1997). *충추는 죽음 I*. 세종서적.
 진중권 (1997). *죽음의 춤 II*. 세종서적.
 송덕운 (1991). 「喪葬의 冠」 제4장 5부. 중국청년출판사.
 자크 르 고프, 유희수등김 (2000). 「서양 중세 문명」. 문학과 지성사.
 C. J. Polson (1953). *The Disposal of the Dead*. London : English Universities Press.
 Funerary Rites & Customs (1971).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9.
 Gert Kaiser, *Der Tanzende Tod* (1992). hrsg. von Eva Schuster, Recklinghausen.
 J. Le Goff (1964). *La Civilisation de l'Occident medieval*. Paris, Arthand, Coll, Les grande civilisations.
 J. Chiffolleau (1980). *La Comptabilite de l'au-dela, Les hommes, la mort et la religion dans la region d'Arignon a la fin Moyen Age*, Rome : Ecole francaise de Rome.
 M. Vovelle (1978). *La mort et l'Occident*. Paris : Edition du Seuil.
 P. Aries (1975).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ven Age a Nos Jours*. Editions du seuil, Paris.
 P. Aries (1983). *Images De L'homme Devant La Mort*, Editions du seuil, Paris.
 P. Cunningham & C. Lucas (1972). *Costume for Births, Marriages & Deaths*, N.Y:Harper & Row Publisher, Inc.
 R. W. Habenstein, W. M. Lamers, *The Histoet Of American Funeral Directing*,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nc., 1985.